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

국어 기출문제 및 해설(1)

박혜선 교수 |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



※QR코드를 통해 2024년도 3월23일 국가직9급필기시험 해설 특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가)~(라)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 되는 경우가 있다. (가) 더구나 약물은 내성이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마련이므로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된다. (나)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로서 오용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일, 남용은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다) 그러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설명서를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라)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① (나)-(다)-(라)-(가) ② (나)-(라)-(가)-(다) ③ (라)-(가)-(나)-(다) ④ (라)-(다)-(나)-(가)

[해설] 출제영역: 독해-순서 배열 정답: ②

첫 부분을 보면 약물의 오남용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선택지를 봤을 때, (나)와 (라)가 뒤에 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의를 내리는 (나)가 와야 한다. 그 이후에 (다) 혹은 (라)가 올 수 있는데, (다)의 경우에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해결방안, (라)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나) 다음에는 피해를 언급하는 (라)가 와야 한다. (가)에 '더구나'는 '또한'이라는 접속 부사와 유사하므로 앞뒤에 같은 힘을 가진 정보가 와야 한다. (라)에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같은 힘을 가진 오남용 피해를 다루는 (가)가 와야 한다. 그 이후에 해결방안인 (다)가 와야 한다.

02.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을: 현대 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족지위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빈부 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금수저', '흙수저'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병: 현대 사회가 빈부 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계급사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계급사회라고 말하려면 계급 체계 자체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특정한 계급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따라서 현대 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려워. 갑: 현대 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간은 결국 경제 활동이고,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 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 ①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한다. ②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③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④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지 않지만 을의 주장과는 대립한다.

[해설] 출제영역: 독해(화법)-말하기 방식 정답: ②

을은 '빈부 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다. 갑 또한 마지막 대사를 보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갑과 을 모두 경제적인 격차를 이유로 현대 사회가 계급 사회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갑은 을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으므로 갑이 을의 주장 중 일부 반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③ 갑은 현대 사회가 계급사회라고 했고 병은 현대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갑과 병이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④ 병의 주장은 갑과 을 모두의 주장과 대립한다. 따라서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03.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로 쓰인 것은?

- ① 그 친구는 허구헌 날 놀러만 다닌다. ② 닭을 통째로 구우니까 더 먹음직스럽다. ③ 발을 잘못 디더서 하마트면 넘어질 뻔했다. ④ 언니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코트를 입었다.

[해설] 출제영역: 문법-한글 맞춤법 정답: ②

통째로(○): 명사 어근 '통'에 '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째'가 결합된 것이므로 옳다. (참고로 '통채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허구헌(X)→허구헌(○): '허구하-'에 관형사형 어미 '-니'이 결합된 것이므로 '허구헌'으로 고쳐야 한다. ③ 하마트면(X)→하마터면(○): '하마하다(下馬하다)'에서 온 말로 '하마터면'은 '하마하터면'의 준말이다. 접사 '하-' 앞에 올림소리가 오므로 '하-'의 'ㅏ'만 탈락되어 'ㅎ'과 '터면'이 축약되어 '하마터면'으로 고쳐야 한다. ④ 잘록하게(X)→잘록하게(○): '잘록하다'는 표준어가 아니므로 '잘록하다'로 고쳐야 한다.

04. 다음은 다의어 '알다'의 뜻풀이 중 일부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 ㉡ 다른 사람과 사귀어 있거나 인연이 있다. ㉢ 어떤 일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 ① ㉠: 그 외교관은 무려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 ② ㉡: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이다. ③ ㉢: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아야 한다. ④ ㉣: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다.

[해설] 출제영역: 문법-의미론-문맥적 의미 정답: ④

④의 '알았다'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믿거나 생각하다.'를 의미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05.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우리 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 도심부에서의 제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교수: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바뀌는 제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강교수: 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기존의 70km/h에서 60km/h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진행자: 시의회에서 이 정책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셨나요? 강교수: 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적년에 7개 구간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 적용해 보니, 차가 막히는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상 이상의 인명 사고는 26.2% 감소했습니다. 또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도 각각 28%, 21%가량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행자: 아, 그러니까 속도를 10km/h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 사고의 예방과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강교수: 네, 맞습니다. 진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제한 속도 조정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까? 강교수: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 설명한다. ②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한다. ③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④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한다.

[해설] 출제영역: 독해(화법)-말하기 방식 정답: ④

발문에서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으므로 '진행자'의 대사 위주로 집중하여 읽으면 되었다. 진행자의 대사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예시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아, 그러니까 속도를 10km/h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는 말씀이시군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진행자의 마지막 대사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 맞습니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